

말레이의 세멘트工業의發展

(1964年7月16日字 Far Eastern
Economic Review誌에서 訳載)

말레이는 今年부터 세멘트를 自給하게 될 것이다. 말레이의 3대세멘트工場은 곧 年間 100萬屯 以上の 세멘트를 生産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는 1963年度의 年消費量 56萬屯은 勿論 1964年度의 需要豫想量 60萬屯을 훨씬 超過하는 것이다.

7月末까지는 Ipoh 에 位置한 Tasek Industrial Estate 의 Tasek Cement 工場이 年産 能力 15萬屯規模로 稼動될 것이다. 이와 매를 같이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会社인 Pan-Malaysia 세멘트工場은 Ipoh北方 Kantharn 에서 年産 50萬屯規模의 巨大한 工場을 稼動하게 될 것이다. Selangor 의 Rawang 에 있는 既存 Malayan Cement 工場은 現在 年産 30萬屯規模로 生産하고 있다.

또한 싱가포르에 있는 "Pan-Malaysia Cement" 의 係系 会社는 앞으로 約 2個月 以内に 年産 25萬屯規模의 工場을 稼動하게 될 것이며 이로서 싱가포르의 需要는 充當될 것이다.

따라서 말레이 세멘트市場에 있어서의 競争은 비록 Sabah 와 Borneo 의 Sarawak 開發을 爲한 需要의 増大를 勘案하더라도 더욱 더 激烈해 질 것이 分明하다.

말레이의 上記 会社들은 모두 그들 工場의 拡張을 일직부러 計劃하고 있으며 한편 昨年 말레이에 對한 세멘트輸出로서 M\$ 30,000,000 을 獲得한바 있는 海外의 輸出業者들은 말레이

市場을 그대로 拋棄하지는 않을 것이며 적어도 一部나마 維持하기 爲해서 決定的인 措置를 取할 것이다.

Tasek Cement 工場은 이미 当初 容量의 倍가 될 才 2 Kiln 의 設備을 訂辦하고 있으며 Pan-Malaysia Cement 工場도 亦是 年産能力을 100萬屯으로 倍加한 方針이다. 그리고 Malayan Cement 会社는 얼마前 부터 才 2의 工場을 建設할 位置를 物色하고 있다.

따라서 1962年에는 말레이와 싱가포르의 세멘트需要中 半以上을 輸入한데 反하여 이들 地域에서 그들 自身の 세멘트過剩生産分을 輸出하기 爲한 海外市場을 摸索할 날도 멀지않을 것이다.

Pan-Malaysia Cement는 首都 Kuala Lumpur로 부터 4 $\frac{1}{2}$ 마일 떨어진 Segambut의 駅을 貨貸하기 爲한 말레이 鐵道庁과 의 協議가 맺어지므로서 重要的 中央말레이市場에 強力한 衝激을 주고있다. 여기에서 그 会社는 지금있는 駅과 宿所 및 荷役場을 解体하고 새로운 站에 이를 다시 세울 것이다. 그리고 現在의 位置에는 二個의 Silo와 時間當 45屯을 包裝할 수 있는 近代的인 세멘트包裝工場을 建設하여 Kuala Lumpur와 中央 Malaya 市場에 月間 萬屯의 세멘트를 供給하게 될 것이다.

그 包裝工場에는 包裝所로 부터 貨車까지 세멘트를 直接運搬하는 設備과 더불어 在庫를 保管할 倉庫가 세워질 것이며 콘베이어는 이들 在庫를 時間當 8個貨車씩 실을 수 있다.

30車輛씩을 運搬하는 세멘트鐵道輸送은 Perak에 있는 Kant-han 工場으로 부터大量으로 세멘트를運搬할 것인데 이러한 運輸量을 收容하기 爲해서 Segambut에 새로운 側線이 設置되고 있다. 이 貯藏所를 爲한 機械와 設備이 이미 日本東京의 「이시가와 하리마」 重工業에 依하여 船積되었으며 設備은 10月에는 操業을 開始할 수 있도록 完成될 것으로 보인다.